

제약·바이오기업 잇단 '희소식'

올해만 4.7兆 기술수출 '쾌거'

인트론바이오·코오롱생명과학 등 R&D투자 임상적 성과 도출 주목 이달 기술수출 금액만 3兆 육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달 기술수출 금액만 2조8770억원, 올해 성사된 기술이전 규모는 4조7000억원이 넘는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간 연구 개발에 집중해 온 제약사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일 인트론바이오는 총 계약금액 6억 6750만달러(약 7526억원) 규모의 슈퍼박테리아 바이오신약 'SAL200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상대는 파마반트(PHARMAVANT)이고 보증계약 상대는 로이반트 사이언스(ROIVANT SCIENCES)다. 인트론바이오는 매출액의 10% 초반대를 경상기술료로 별도로 수령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현재 해당 기술을 이용해 임상 2상과 임상 1상 시험을 한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일 코오롱생명과학은 글로벌제약사인 먼디파마와 세계최초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일본 기술이전(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총 금액 6677억원(약 5억 9160만 달러)으로 반환 의무없는 계약금 300억원(약 2665만 달러)과 단계별 판매 마일스톤 약 6377억원(약 5억 6500만 달러)이 지급된다. 국산 의약품의 단일국가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일 유한양행은 안센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의 기술수출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은 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만 달러를 지급받고, 개발 및 상업화까지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최대 12억500만 달러를 받아 총 수출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7월에도 미국 스팅인 바이오파마에 퇴행성디스크질환 신약물질 'YH14618'를 총 2억1815만달러(2442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한 바 있다.

전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기술수출한 성과도 있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8월 레오파마와 전임상 단계에 있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후보물질 'JW1601'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은 4억200만달러, 약 4500억원 수준이다. JW중외제약은 제품 출시 이후에는 레오파마의 매출에 따라 최대 두자릿수 비율의 로열티도 받게된다.

사람을 대상으로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전 단계인, 전임상 결과만으로 기술수출이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혁신신약 가능성이 높음을 방증한다. 특히 선진 기술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와 손을 잡으면서 개발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 실패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KB증권 이태영 연구원은 "그간 연구 개발에 집중해온 여러 제약사들의 투자 성과 도출 되고 있다"며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간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유의미한 임상적 성과 도출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프랜차이즈 매장은 똑같다고?

"지역 특색 담으니 '명소' 됐네~"

프랜차이즈업체가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와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색을 담은 매장을 내세우며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 특색을 담은 매장들은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위치적인 특성이 반영돼 소비자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 명소'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KFC '제주 중문점'

KFC는 지난 10월 '제주 중문점'에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특별한 동상을 설치해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대표마스코트인 '커널샌더스 상'에 제주도의 독자적인 해녀 문화를 반영해, 하얀 정장이 아닌 해녀복을 입은 '커널샌더스 상'을 설치한 것이다. 이 '커널샌더스 상'은 해녀복과 함께 한손에는



해산물 대신 치킨이 가득 든 그릇을, 다른 한 손에는 치킨 한 조각을 들고 있어 KFC와 제주도 특색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매장 2층에는 하얀 자켓을 입은 본래의 커널샌더스 상 외에 붉은 자켓, 파른 자켓을 입고 있는 커널샌더스 상을 추가로 세워, '제주 중문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말 그대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맥도날드 '경주 용강 DT점'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할 만큼, 신라 천년의 역사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경주에 위치한 맥도날드 역시 남다른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맥도날드는 경주에 한국 최초의 기와집 맥드라이브(McDrive) 매장인 '경주 용강DT점'을 운영 중이다. 경주 용강DT점은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통 한옥 구조의 기와집 형태로 지어졌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기와집 형태의 맥드라이브 매장이다. 총 2509㎡(약 759



평) 규모의 대지에 1층 건물로, 113좌석을 갖추고 있다. 맥드라이브는 차를 탄 채 제품을 주문하고 결제, 픽업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으로 지난 1992년 맥도날드가 부산 해운대점에 최초로 도입했다.

스타벅스 '문경새재점'

문경새재에서는 유독 한국적인 느낌이 가득한 스타벅스 매장을 만나볼 수 있다. 문경새재는 선비들의 과거길로 유명한 곳으로, 옛길을 따라 펼쳐진 자연경관과 함께 복원된 주막 및 다양한 유적으로 역사적, 민속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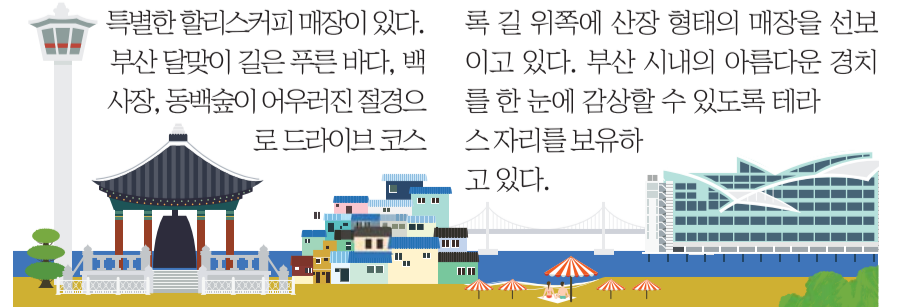
스타벅스는 문경새재의 이러한 역사적 특성을 반영해 가장 한국적인



느낌이 가득한 매장을 선보였다. 2층에는 국내 최초로 좌식 매장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할리스커피 '부산 달맞이점'

부산의 명소인 달맞이 길에는 특별한 할리스커피 매장이 있다. 부산 달맞이 길은 푸른 바다, 백사장, 동백숲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드라이브 코스



로도 유명한 부산 팔경 중 하나다. 할리스커피 '부산 달맞이점'은 이러한 부산 팔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길 위쪽에 산장 형태의 매장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 시내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테라스 자리를 보유하고 있다.

초음파로 식도정맥류 출혈 치료 예측한다

김휘영 이대목동병원 교수 공동연구

출혈 위험이 높은 식도정맥류(식도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를 가진 간경변증 환자에서 출혈 예방을 위한 베타차단제 투여 시 초음파 기법을 이용한 치료 반응 예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도정맥류는 간문맥(내장 및 비장에서 온 혈액이 간으로 모여드는 혈관) 압력이 상승해 혈액이 식도로 몰려 식도 정맥이 확장되는 현상인데 출혈이 발생하면 피를 토하거나 흑색변을 배설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이 되는 문맥압을 낮추기

위해 베타차단제를 투여할 수 있다.

김휘영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서울의대 김원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간경변증 환자에서 식도정맥류 출혈 예방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약제인 베타차단제 치료 후 혈액학적 예측 지표를 조사한 결과 초음파로 측정된 비장강직도가 예측 지표로서 유의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김 교수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해 출혈 위험이 높은 식도정맥류가 관찰되는 106명의 환자에서 베타차단제 치료 전과 후의 간경변증, 간강직도와 비장강직도를 측정했다. 이후 관찰된 측정값



을 이용하여 혈액학적 반응에 대한 예측모형을 도출하고 63명의 독립적인 코호트에서 해당모형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혈액학적 반응은 도출 코호트에서 59명(55.7%), 검증 코호트에서는 33명(52.4%)에서 관찰되었고, 다변량분석에서 치료 전후 비장강직도의 변화가 혈액학적 반응의 유일한 예측 지표였으며, 비장강직도 변화를 이용하여 도출한 예측모형은 양 코호트 공히 우수한 예측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동래 할매파전·철원막국수·공원당... '백년가게' 18곳 추가선정

부산 동래할매파전, 강원도 철원의 철원막국수, 충북 청주공원당, 충남 천안 큰덕, 울산 안양불고기 등이 '백년가게'에 추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과 이달에 제3차·4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모두 18개 업체를 '백년가게'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위원회에선 서류와 현장 평가를 통한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여부, 평판도 등을 고려해 음식점 15개, 도·소매업 3개 업체를 뽑았다. 지역별로 충북 6개, 충남 3개, 대전·강원 2개, 부산·경북·경남·광주·울산이 각 1개이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지속 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공모델을 발굴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모두 48개 업체가 뽑혔다.

이번에 백년가게로 선정된 동래할매파전은 서민 음식 '파전'을 '동래부사가 임금님에 진상했다'는 스토리로 4대째 지속한 명품 파전집이다. 공원당은 차별화된 비법과 정성이

담긴 판메밀, 온메밀 그리고 다양한 돈가스, 청주지역 달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나드리는 중독성이 강한 다양한 쫄면 양념을 개발, 상품화에 흡소핑과 대형마트까지 판로를 넓혀나가는 쫄면 업계의 전국 강자다.

중기부는 뽑힌 업체에 백년가게 확인서와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들은 백년가게 확인서를 갖고 가까운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100% 보증과 보증료율(0.8% 고정)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선 정책 자금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와 전국 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온라인(100year@semas.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백년가게 3·4차 선정 결과〉

상호명	위치	업력
동래할매파전	부산 동래구	40
철원막국수	강원 철원군	44
봉래식당	경남 창원시	52
공원당	충북 청주시	41
대동관	충북 청주시	42
재건갈비	충북 청주시	37
제천식육점	충북 제천시	39

상호명	위치	업력
나드리	경북 영주시	32
민들레	광주 서구	33
동승춘	강원 삼척시	32
신화당분식	충북 청주시	41
남주동해장국	충북 청주시	32
큰덕	충남 천안시	36
진주회관분관	충남 천안시	37
만덕동나무집식당	충남 태안군	30
안양불고기	울산 안양읍	33
한도안전상사	대전 대덕구	32
동신위생도기	대전 대덕구	52

/자료=중소벤처기업부